

68. 버스운전기사에서 발생한 비특이적 호흡기 증상

성별	남	나이	44세	직종	버스운전기사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서OO은 2001년 12월 31일 P교통(주)을 이직하고 나서, 2002년 2월 H병원에서 만성 폐쇄성(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서OO은 1997년 4월 5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4년 9개월간 P교통(주)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입사 후 2001년 9월 20일까지 운전한 부산-연양간 시내버스는 1회 편도 운행에 약 1시간 40분씩 소요되며, 하루 편도 5-6회씩 월 20일(만근시) 운전하였다. 이후 2001년 12월 31일 사직할 때까지 운전한 부산 동래-영산대(서창)간 시내버스 노선은 1회 편도 운행에 50분이 소요되며, 일주일마다 오후 2시경 교대되는 하루 2교대 근무를 하였다. 서OO은 1980년 운전면허를 취득, 택시운전 5년 등 여러 업체에 소속되어 운전하다가, 1991년부터 약 2년간 버스운전을, 1993년부터는 택시운전을 하다 1997년 4월 5일 현재 P교통(주)입사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서OO은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다. 1985년까지 8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하였고(8 갑년), 월 1-2회 소주 1병씩 음주하였다. 2001년 11월 23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두통 등이 시작, 27일 근처 의원에서 급성 편도염 및 인후두염으로 투약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2년 2월 14일 H병원을 방문하였다. 내원 당시 흉부 청진상 crackle이 들렸고, 단순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소견이 있었다. 하지만 판독지에는 특이소견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후 6월 14일까지 10회에 걸쳐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이 중 4월 10일과 22일에는 천명음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폐기능검사는 실시한 적이 없다. 이러한 증상이 시작된 이후인 3월 4일 촬영한 단순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고혈압성 심혈관 소견이 있었으나 폐실질은 정상이었다. D대학병원에서 실시한 특진에서 2002년 9월 5일 초진시 폐기능검사상 FVC 70% FEV₁/FVC 87 %로 제한성 환기장애 소견이 나타났다. FEV₁은 기대치의 77 %이면서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한 후 21 %가 증가하였으며, DL_{CO}는 기대치의 77 %, DL_{CO}/V_A는 기대치의 84 %이었다. 그러나 10월 8일 메타콜린부하검사를 위한 폐기능검사에서는 환기장애 소견이 없었고, 부하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순흉부방사선사진상 특이소견이 없었다. 심전도검사서 좌심실 비후 소견이 나타났으나 심초음파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었다.

4. **결론:** 서OO의 호흡기 증상은

- ① 2001년 11월 갑자기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시작되었는데,
- ② 최초 진단명인 만성 폐색성 폐질환 뿐만 아니라 특진에서 진단한 기관지 천식도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
- ③ 이들 질병에 의해 발생한 증상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